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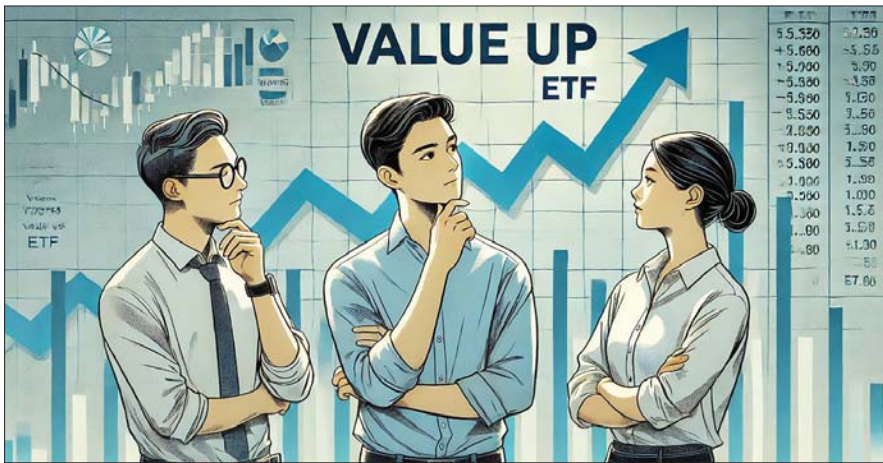
정부 ‘당근책’ 밸류업 ETF, 올해 거래량 25% ↓ ‘관심 밖’

KRX, ETF 12종 순자산 6290억
작년 말 최대 7486억원서 주저앉아

‘이전 정권 정책산물’ 부담 작용
13일 리밸런싱… 투심회복 기대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밸류업 ETF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4일 12개가 동시 상장됐다.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들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당근책’이었으나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와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밸류업 ETF 12종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6290억원으로 집계됐다.



ChatGPT로 생성한 ‘밸류업 ETF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들’의 모습.

밸류업 ETF 12종의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11월 4일 첫 상장일 4961억원에서 차츰 늘어나 지난해 12월 3일 7486억원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후 비상계업 선포·해제에 따른 시장 불안, 밸류업 동력 약화 우려에 추세적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 말 4000억원대로 다시 주저앉았고, 올해

들어서는 6000억원 안팎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자 관심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거래량은 총 59만 694좌에서 지난달 29일 43만8282좌로 25.8% 감소했다.

기초지수인 코리아밸류업지수는 공

개(지난해 9월 30일)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6.73%, 올해 들어서는 14.81% 올랐다.

코스피 지수가 같은 기간 각각 2.67%, 13.38%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선방하고 있지만, 밸류업 ETF에 대한 관심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약하고, 일부 투자자들이 밸류업 ETF를 ‘이전 정권의 정책 산물’로 인식하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는 6월 13일 예정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첫 정기 리밸런싱이 밸류업 ETF에 대한 투자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리밸런싱을 통해 지수 구성 종목 수를 105개에서 100개로 조정하고, 밸류업 공시를 게재한 기업을 우대해 교체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는 6월

3일 대선 이후에는 시장의 관심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다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목표 달성 시기가 올해부터인 기업도 상당히 많아 올해 기업들의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배당 분리과세,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개편이 진행된다면 주주환원 수준이 더 크게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ETF 순자산총액은 6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리밸런싱을 통한) 수급 효과는 작을 것으로 본다”며 “지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수 구성에 있어) 밸류업 공시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시 내용을 뜯어보고 투자자들이 진짜 투자할만한 기업들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7% 배당’ SKT, 회복세… 저점매수 관심

“해킹사태 불구 실적충격 크지 않을 것”
하나증권, SKT 투자이견 ‘매수’ 유지

SK텔레콤(SKTEL)이 유심 해킹 사태로 급락했던 주가를 회복하며 ‘저점 매수’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간 배당 유지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대비 투자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주가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SKTEL은 전 거래일 대비(지난달 29일) 0.39% 오른 5만1500원에 마감했다. 같은 날 KT는 5만800원(-0.39%), LG유플러스(-0.54%)는 1만2800원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하락한 가운데 SKTEL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하반기 방어주로서의 매력에 재조명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SK텔레콤은 4월 해킹 사태를 발표한 이후 5만800원(5월 22일 종가)까지 밀리며 일시적으로 KT에 시가총액과 주가 모두를 추월당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분기 주당 830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2

분기 이후에도 배당 감소 가능성이 낮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회복되는 중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해킹 사태로 인한 비용 반영과 가입자 손감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로 실적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 배당수익률 7% 수준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하나증권은 SK텔레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7만원으로 제시했다.

SK증권도 최근 보고서에서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겠지만, 유심 교체 대부분 마무리되고 하반기부터 비용 효율화가 본격화되면 연간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연간 주당 배당금 3540원 유지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DB금융투자도 목표주가는 기존 7만3000원에서 6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배당 유지 전망에는 동의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유심 교체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까지 누적 교체 인원은 537만 명에 달

했으며, 잔여예약 고객도 372만 명으로 절반가량 해소됐다. 최근 교체 속도를 감안하면, 현 시점까지 예약한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는 6월 중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산간·벽지 지역 고객 대상 교체 지원에 나선 것도 약재 해소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는 통신3사 가운데 SK텔레콤이 단기 낙폭 과대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에 높다고 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수익성 개선과 SKTEL 이슈의 반사이익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5월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기준 주가는 다시 SKTEL(5만1500원), KT(5만800원), LG유플러스(1만2800원) 순으로 재정렬됐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주가가 5만원 부근에서 예상 배당수익률이 7%까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지선이 형성된다”며 “과거에도 이 수준에서 반등이 이뤄졌고, 현재 금리와 배당 수준을 고려할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기술이 곧 신약… 성과로 가치 증명 mRNA 냉장·냉동 보관 문제 해결”

코스닥 CEO 인터뷰

권 규 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

“기술이 신약이 되고, 신약이 성장의 축이 된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대표는 인터뷰에서 기업의 정체성과 비전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는 “신약 개발은 기술력에 대한 확신과 시장과의 약속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그 약속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Dx&Vx는 요란한 구호보다 조용한 실행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다. 유전체 진단 기반의 정밀의료 기술과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갖춘 보기 드문 회사다. 최근에는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플랫폼’과 ‘경구용 비만 치료제’ 등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15개 이상의 R&D자산 보유
현재 보유중 주요 파이프라인
항암·감염병·대사질환 분야
차별화 비만 치료제 개발 중

지난 2021년 한미약품 임종윤 사장이 코스닥 상장사였던 캔서롭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사명을 Dx&Vx로 바꾸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스핀오프 기업인 ‘옥스퍼드 백메딕스(OVM)’의 항암백신 기술을 도입하며 회사의 지향점도 분명해졌다. 권 대표는 “제로에서 시작했지만 1년 반 만에 글로벌이 주목하는 파이프라인을 여럿 확보했다”고 말했다.

현재 Dx&Vx가 보유한 R&D 자산은 현재 15개 이상이며, 주요 파이프라인은 항암, 감염병, 대사질환 분야에 집중돼 있다. 특히 ‘OVM200 ROP’ 항암백신은 암세포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

는 ‘서바이빈(survivin)’을 타깃으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기전이다. 영국에서 임상 1b/2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와 중국에서도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는 기존 GLP-1 주사제와 차별화된 경구용 유기합성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다. 권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거대한 수요가 예고된 분야”라며 “우리는 펩타이드가 아닌 그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유기합성 물질로 희소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술 축은 ‘상온 초장기 보관 mRNA 플랫폼’이다. 기존 mRNA 기술의 한계였던 냉장·냉동 보관 문제를 해결한 이 기술은 지난해 ‘한국형 ARPA-H’ 국책 과제로도 선정됐다. 현재 국내외 대형 제약사들과 물질이전계약(M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라이선스 아웃 성과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권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투자 위축”이라며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유 중인 기술자산들은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이라며 “이제는 라이선스 아웃을 통한 실질적인 매출과 함께 시장과의 소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KRX 2차전지 톱10 지수’ 올해 21.18% ↓

전기차 캐즘 장기화 영향

엘앤에프 -29%, 삼성SDI -32% 등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맥 빠진 모습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2차전지 톱10 지수’는 올해 들어 약 21.1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2.43%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엘앤에프(-29.38%), 삼성SDI(-31.76%), 에코프로(-25.57%), LG에너지솔루션(-17.82%), 에코프로비엠(-18.38%) 등 대표 종목들도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

를 보였다.

업종 전반의 주가 부진은 전기차 수요 위축에 따른 실적 악화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SDI는 올해 1분기 43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엘앤에프도 같은 기간 140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한 23억원에 그치며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발 정책 리스크도 2차전지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달에는 그 대상을 수입 자동차 부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최근 공화당 지도부가 인플레이션축법(IRA)의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미국은 유럽과 함께 한국 2차전지 기업의 핵심 수출 시장인 만큼,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차전지 업종은 상반기 조정을 거쳐 하반기에는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 및 인도향 수요 반영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관희 기자